

주일의말씀

기다리는 삶

최호철 안토니오 신부
3대리구 사목국장



세상에는 두부류의 사람이 존재 합니다. “오늘” 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내일” 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오직 오늘의 삶에 만족하고 현실만을 생각하며 오로지 현세의 기쁨과 즐거움만을 좇으며 사는 삶이라면, “내일” 을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 이라는 시간에 집착하지도 포기하지도 않고 “희망” 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희망하기에 어렵고 힘들고 팍팍한 이 세상의 삶을 견디어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 준비”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가장 우선시되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러한 삶으로 살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을 기다리는 무리에 끼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듯, 주님을 기다리는 대열에 함께 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 그분을 기쁘게 맞이드릴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부여받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삶의 부르심에 얼마나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에 달려 있음을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생명의말씀

신앙이 온다. 신앙을 맞으러 나가라. (마태 25,6 참조)

제1독서 : 지혜 6,12-16 제2독서 : 1테살 4,13-18 복음 : 마태 25,1-1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문화홍보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쓰는 말이 여럿 있습니다만 가장 자주 쓰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네 단어는 또한 사도신경의 여러 고백들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또 중심이 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말마디는 “예수님께서서는 구세주이시고, 저의 주님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느님

‘예수’라는 이름이 주님의 본 이름입니다. 천사가 요셉 성인에게 일러 준 이 이름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 또는 “구원하시는 하느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마태 1,21)하고 말했습니다. 이 이름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주님께 드리는 존칭이며,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본래의 말뜻은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늘의 명을 받아 도탄에 빠진 세상을 건져낼 위대한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임금에게, 대사제에게, 또 예언자에게 기름을 발라 그 사람의 직책을 표시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해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임금이시고 대사제이시며 스승으로서 세상을 하느님과 다시 화해시키시는 분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주님이신 예수님

예수님 당시에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신하가 임금을 부를 때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도 ‘주님’이었습니니다. 주인님이라는 말인데, 내 목숨을 마음대로 할 권리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이시므로 세상의 이런저런 주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하인에 불과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의 높은 사람들에게는 그 권력 때문에 복종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큰 사랑에 감복한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마치 우리가 주인이고 예수님께서서 우리 하인이신 것처럼 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규칙적으로 잠각에...

박성규 엘리지오





오늘의 미사

연중 제32주일

입당성가

227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화답송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180 주님의 작은 그릇

영성체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파견성가

51 주나의 목자되시니

영성의 향기

:: 재능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나는 내 놓을 만한 재능이 없어.”하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본인이 아직 하느님께서 주신 재능을 알아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쓸모없는 것을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고 우리 사람은 세상 만물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재능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넣어 주신 귀한 선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자기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선물은 나누어 써야 하는 법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느님께서 주신 자기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지상의 유일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누구도 내가 할 몫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능력을 주실 때에는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 그 능력이 필요한 많은 이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 (1베드 4,10)해야 합니다. 대구교구

- 교구사목국 권가타라나 수녀 -

교부들의 지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다면 왜 청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욕망을 더 잘 아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안에서 우리의 욕망이 수련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선물은 크지만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 마음은 작고도 겸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주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영원한 삶인 복된 삶을 끊임없이 갈망하라는 뜻입니다.

-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의 <프르바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11.10(목)은 故박준택(베드로) 신부 6주기입니다.

모임/행사

제14회 창작생활성이경연대회

일시: 11.12(토),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원
문의: 사목국 청년담당, 422-6692

교구 100주년 기념 생활성이축제 제4회 괴리콘서트

일시: 11.13(일) 14:00~16:00 무료 초대
장소: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원
문의: 대구가톨릭생활성이협회, (010)9577-7819

교구 청년 회장단 연수

일시: 11.27(일), 3대리구청
문의: 사목국 청년담당, 422-6692

떼제기도회

일시: 11.12(토) 20:00, 삼덕 젊은이성당

전례꽃꽂이 연구회 수강생 수료 전시회

일시: 11.8(화) 10:00~10(목) 17:00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회의합실
전례꽃꽂이 수강생 모집(010)2506-6259

가톨릭운전기사사도회 월례회

일시: 11.9(수) 14:00, 가톨릭 교육원

성소/피정

바뇌성모기도회 16주년 추계 대피정

일시: 11.17(목) 09:30~16:00, 삼덕성당
강사: 양진홍(제날드)신부 (과달루페외방성교회)
문의: 삼덕성당, 427-7543

수도자들과 함께 하는 성탄 전례피정

일시: 12.23(금) 16:00~25(일) 13:00
장소: 왜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참가비: 10만 원

신청 및 문의: (054)971-0722

올리베따노성베네딕도수녀회 해바라기 가을피정

일시: 11.19(일) 17:00~20(일) 15:00

장소: 부산 성 분도 은혜의 집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문의: (011)9551-3312

교육/모집

아름다운 성지에서 열리는 수도자와 성가대 봉사자를 위한 집중 전례음악 연수

일시: 11.7(월) 17:00~9(수), 점심식사
장소: 대구대교구 한티 피정의 집
신청마감: 11.6(일) 18:00까지, 선착순 40명
문의 및 신청: 한티 순교 성지-피정의 집, (054)975-5151/ (010)5442-6112

유치원 · 어린이집 자연체험학습장 이용안내

텃밭분양, 운동장 · 교실 등 각종 편의시설 제공
위치: 대구시 동구 백안동 66번지 대구ME단남의집 (백안삼거리 공산초등학교 옆, 공산중학교 맞은편)
문의: 대구 ME단남의 집, 983-0521

제6기 본당 봉사자 복음화 학교(기초과정)

일시: ①11.19~20 ②12.10~11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회의합실
① · ②택일 동일 과정, 마감: 11.13(일)
문의: 사목국 복음화 담당, 250-3056

가톨릭문화관 교육생 모집(476-6211)

통기타, 바이올린, 플룻, POP, 초크아트

제18회 대구청소년수련원 필리핀 영어연수

대상: 초4중3(선착순: 40명)
기간: 12.31(토) 출발(6주), 410만 원
기타: 설명회 - 11.12(토) 15:00
문의: 656-6655(ARS4)
* 제11회 성인 해외봉사 및 어학연수 모집 중
시편성가연수(S:김정선,발성법(박재연)회비1만원
일시: 11.6(일) 15:00, 가톨릭음악원(255-4847)

2012학년도 효성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일시: 11.7(월)~11.11(금) 09:00~16:30
자격: 2005.1.1~12.31 사이에

출생한 대구광역시 거주 아동
방법: 아동 및 학부모 면접 후 컴퓨터 추첨
문의: 636-1346(http://dg-hyoseong.es.kr)

2012 전기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신입생 모집(석사, 박사, 석 · 박사통합과정)
접수기간: 10.31(월)~11.11(금)
문의: 850-3584/3637 (http://www.cu.ac.kr)

대구가톨릭대학교 TESOL 5기 개강

입학식: 11.12(토) 15:00, 펜실베니아 대학 제휴
경북유일 180시간, 영어회화 전담 강사지원가능
미국유학 시 학점인정 1년 내 석사학위
무료어학연수 기회, 신부님 추천장학
전화: 526-0111(http://tesol.cu.ac.kr)

제39차 마신부님 아일랜드 영어연수

주관: 마 신부님(아일랜드 콜롬반회)
초 · 중 · 고: 2012.1.7(토)~29(일)
*아일랜드 학생들과 함께 정규수업
대 · 일반: 2012.1.8(일)~2.19(일)
문의: 그란피스 E&T, (02)3446-4253

안 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 검진

대상: 2011년 대상자
문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650-4591
*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 발견에 좋습니다.
교구법원 공시(253-9550)
아래공시되는분은교구법원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방순덕(안나)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밀알후원회 및 시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11월 7일(월)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11월 7일(월) 오후 7시 30분	꾸르실로 교육관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월 7일(월) 오전 11시	성동성당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성시각 및 미사	11월 7일(월) 오후 10시	한티순례자의 집
5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1월 7일(월) 오전 11시	중리성당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11월 10일(목) 오후 2시	성모당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 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 070-8827-6207
부산 - 051-817-3885~8
서울 - 02-579-3889
02)3141-3888
http://www.mjms.co.kr
대표 김순자(마리아)

분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이지 않습니다!
분도석유
전화 한 통화면 어느 곳든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료전화)
424-2240, 743-1977, 957-9543
대표 김현철(베네딕도)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상담소
474-0025, 476-9275
가톨릭문화관 2층
남대구우체국 옆 교대역 입구
권중문(파비올라)

3대를 전통과 신도보이를 고집하는 기업
(주)약령시사람들
“경육과 다양한 제품류”
● 노인성질환, 생장기어린이, 수험생, 갱년기 여성, 교우님 특별 우대)
웰빙건강식품, 각종 선물류
대표: 양대석(안토니오), 임영주(모니카)
☎ 428-8002, 011-528-8008

수맥 흙(돌)침대
불면증, 허리통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 1588-5335

소아 난치병 전문 한의원 / Since 1999
성모아이한의원
www.sungmoi.com
* 잦은감기(열, 비염, 천식, 중이염)
* 락, ADHD
* 난치성 아토피
* 언어발달장애, 지체
* 식욕부진, 성장, 아노증
한의원 박사 김성철(비오)
동국대 한의학과 외래교수
☎ 592-1275, 593-1275

건강백세 내과
건강검진, 암검진, 내과진료
범어네거리(752-0141)
(지하철 2호선 범어역 4번출구)
원장 채희갑(바로로)

사회복지법인 서정길 대구교재단
데레사소비센타
수익금 전액은 사회사업에 위해 사용됩니다.
* 청과, 아재, 선어, 정육
* 신선, 가공식품, 공산품, 생필품
* 생활, 패션잡화, 수입주방, 수입가전
765-1500 (어린이회관맞은편)
대표이사 장영일(그라산도)신부